2026년 9월 11일(금) 구역예배 자료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37절**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11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4장 36~37절(신193)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325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09월 06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 사도 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행전을 보면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라는 사람 또한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이었고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바나바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요약〉

우리 함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바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의 또 다른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바나바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등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아버지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정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초대교회의 최대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역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부인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 3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의 전력을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교회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위장 전술로 간주했습니다. 선뜻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사람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진심으로 회심하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미 주여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는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므로 바울은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어 줌으로 상대방이 위로와 격려를 얻고, 여러분이 안내해 줌으로 상대방이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도움을 받으며, 여러분이 세워 줌으로 상대방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34절과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밥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재물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아니 반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재물에 관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에 대한 답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임박한 종말 사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이 임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물질은 단순히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수단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은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잠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을 도구일 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고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밭과 집도 다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그날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 우리 생애에 있을지 우리 사후에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종말인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깊이 자각하는 그리스도인만이 물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라서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개인의 종말을 깊이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산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기〉

1. 내가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물을 모으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이 땅에서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같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을 믿어주고 교회와 좋은 공동체와 좋은 인생의 길로 안내해주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지금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웃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